

유토피아 같은 이상理想 사회에 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끔씩 이상 사회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곤 한다. 이상 사회를 말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고유 권한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열매처럼 실제 얻어질 테니 말이다.

나는 평등을 이상 사회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언뜻 생각하면 평등이 거창한 화두 같지만, 철학이 실생활의 학문인 것처럼 평등의 의미 또한 우리 삶 속에 내재돼 있다. 나는 그런 평등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로 양성평등을 꼽고 싶다.

양성평등을 말하면 여권女權을 얼마나 더 신장시켜야 하느냐며 불멘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여권을 뚝 떼서 바라보는 생각에 불과하다.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여권을 남권과 계량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兩性の 권리를 함께 신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차별을 균형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시소에 비유한다면 평등은 함께 사이좋게 균형의 막대에 걸터앉아서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는 그네에 비유하고 싶다.

요즘같이 우리가 혐오를 가슴에 비수처럼 품고 사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시민 사회가 형성되면서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자 혐오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 구성원인 양성 간 혐오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접어들려는 시점에서 국력을 분산시키는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도 모자라 양성 갈등이란 위기를 맞고 있다. 양성 갈등은 나와 먼 일이 아닌 내 주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나 역시 언론에서 접하는 경우 말고도 가까이에서 양성 갈등으로 빚어지는 사건을 심심찮게 경험하곤 한다.

양성 갈등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사회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성 지배적인 유교 사회에 살았고, 가부장적 문화와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히 우리 의식 구조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 갈등은 우리가 권위적인 사회에서 수평적인 사회로 가는 과도기의 산고産苦다. 따라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습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양성 갈등은 또 우리가 성별에 따른 ‘역할’과 ‘역할 행동’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데서도 기인한다. 역할은 한정적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 개념이고, 역할 행동은 그에 걸맞은 작용이기에 두 개념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양성 갈등을 정치권이나 언론이 부추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양성 간 혐오가 심화된 데는 기성세대가 자신들 이익에 따라 양성 갈등을 이용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양성은 공존해야 한다. 그리고 혐오를 벗어나 상생이 보인다. 양성 갈등을 쉬쉬하지 않고 양지로 끌어내 건강한 토론을 벌인다면 오히려 양성평등의 토대가 단단하게 마련되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내 주장만을 말하기보다 경청의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화계에 벅델 테스트(Bechdel test)라는 용어가 있다. 영화에서 양성평등을 가늠하는 지수로서 그 기준은 첫째,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이 나와야 하고, 둘째,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하며, 셋째, 대화 소재나 주제는 남자 얘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수는 결코 남성을 소외시키거나 배척하자는 게 아닐 것이다. 단지 그동안 여성 캐릭터를 영화의 양념이나 감초로만 바라봤던 시각視角을 버리고, 우리 실생활로 확장해 여성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보자는 것 아니겠는가. 영화가 역으로 현실을 자극해 사회 구성원들이 더

이상 색안경을 낀 채 어느 특정 성성을 삶의 무대에서 걸도는 인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꿈이 어찌 어느 특정 성성의 전유물이고, 주인공이 되는 일이 어찌 어느 특정 성의 몫이겠는가. 양성평등의 가치엔 권리도 의무도 함께 누리고 져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먼저 같은 출발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사회가 상대적 약자에게 기회의 디딤돌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양성 역시 서로에게 편견을 갖는 대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공존과 상생의 미덕을 깨쳐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러면 공정公正도 담보돼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무지개나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어울리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데, 하물며 한 나라에서 양성이 어울리지 못할 일이 뭐 있으랴. 양성평등은 인권의 가치이기도 하니 우리 모두 휴머니즘이 꽃필 미래를 위해 평등의 발에 화합의 씨를 뿌리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양성평등의 그네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른 미래로 가뿐하게 오르리라.